

‘신인 딱지’ 뎀 좌완 윤영철 더 강해진다



KIA 타이거즈 스프링 캠프

호주 캔버라=김어울 기자 YouTube 광주일보

마음은 편해졌고, 몸은 더 단단해졌다. KIA 타이거즈 윤영철의 두 번째 시즌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윤영철은 지난 시즌 KIA의 선발 한 축을 지키면서 ‘무서운 신인’으로 등극했다. 공이 빠르지는 않지만 정교한 제구와 대범한 멘탈로 프로의 높은 벽을 거세게 두드렸다.

프로 첫 무대였던 4월 15일 키움전에서 1회에 5실점을 하는 등 고전하는 날도 있었지만 윤영철은 25경기에 나와 122.2이닝을 책임지면서 8승을 수확했다.

정신없던 데뷔 시즌을 보낸 윤영철은 호주 캔버라에서 스프링캠프를 치르면서 차분하게 성장의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프로 두 번째 캠프에서 달라진 점을 묻는 질문에 “후배가 생겼다”고 웃는 윤영철은 “작년보다 마음이 편한 것 같다. 작년에는 처음이기도 하고, 보여준 게 없었기 불안한 것도 있었다. 잘하려고 욕심 내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더 편한 마음으로 왔다”고 말했다.

시애틀 드라이브라인 유학...구속·구종 ‘커터’ 늘리고 자세 교정 “욕심 내기보다 편한 마음으로 훈련...부상없이 시즌 완주하고요”

프로 첫 캠프는 자신을 어필하고, 선발 경쟁도 해야 했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지난 시즌 확실하게 선발 자리를 굳히면서 윤영철은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

윤영철은 “지난해에는 경쟁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문에 긴장도 하고 그랬다. 더 잘하려는 마음이지만 편하게 왔고, 부상 없이 시즌 마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준비 잘해서 더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말했다.

마음이 편해진 윤영철, 지난 시즌보다 몸도 훨씬 단단해졌다.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체계적인 공부도 이뤄졌다.

오키나와와 광주에서 투구폼을 조정했던 윤영철은 미국 시애틀 드라이브라인에서 체계적으로 자신의 야구를 살펴보고, 방향을 잡는 시간을 보냈다.

윤영철은 “투구폼, 던지는 점수가 가장 좋았다. 그런데 무릎 디딜 때가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 던질 때 무릎이 퍼져야 하는데 그게 약해서 좋은 것을 쓰다가 한 번에 무너트리는 느낌이었다. 모아서 한 번에 힘을 써야 하는데 마지막에 천천히 나가는 것이다”며 “영상으로 보고 수차례 확인하니 까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더 폭발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은 윤영

철은 메디슨 볼을 활용한 운동으로 진화를 준비하고 있다.

윤영철은 “메디슨 볼이 던지고 있다. 드라이브 라인에서 그런 부분 좋아지면 충분히 평균 구속 142-143까지 낼 수 있다고 설명해 줬다. 좋은 방향으로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영철은 ‘구종 추가’로 수싸움을 위한 무기도 늘렸다.

윤영철은 “미국에서 구종도 하나 추가했다. 커터를 배워왔다. 지난해 던지던 슬라이더가 커터성이라고 했다. 그것을 커터로 만들었고, 새로운 슬라이더를 하나 배웠다”며 “새로 배운 건 각을 크게 만들었다. 커터는 스피드도 빠르게 하고, 그림을 조금 바꿔서 우타자 승부할 때 하이볼로 쓰게 연습하고 있다. 시합 때 체크하고 섞어가면서 타자와 승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족한 점을 깨닫고, 어떤 방향으로 운동을 해야 할지 알게 된 좋은 시간이었다”며 “지난해 안 좋은 경기도 많았고, 초반이나 중간 쯤에 좋지 않은 경기도 있었다. 아쉬운 경기가 많아서 그런 경기 최대한 줄이는 걸 목표로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글·사진=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 윤영철이 15일 호주 캔버라 나라분다 볼파크에서 힘차게 공을 뿌리고 있다.

‘페이크 번트’에 속지 마라

야수진, 타자·주자 나눠 번트 게임...압박감 이기고 공격적 주루 훈련

즐거운 경기를 위해 훈련부터 즐겁다.

KIA 타이거즈의 스프링캠프가 꾸러진 호주 캔버라 나라분다 볼파크에 웃음 가득한 훈련이 진행됐다.

야수진이 두 조로 나눠 타자와 주자로 됐다.

타자의 역할은 번트, 주자의 임무는 번트 페이크 동작에 속지 않으면서도 공격적으로 주루를 하는 것이었다.

롤은 이랬다. 타자가 초구에 번트를 대 그라운드 세위진 큰 박, 선상으로 공을 보내면 2점을 얻는다. 더 많은 점수를 얻고 싶다면 초구에 페이크 동작을 해 주자의 역동작을 유도, 1점을 만든 뒤 2구째 번트에 성공하면 된다. 그러면 번트 점수까지 해서 3점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다.

3점을 얻기 위한 위험부담은 있다. 페이크 동작을 했는데 상대가 속지 않을 경우에는 -1점이 되기 때문에 2구에 성공해도 1점에 만족해야 한다.

번트 기회는 두 번. 1구에 성공해야 2점, 2구째 번트를 기록하면 1점을 가져갈 수 있다.

조재영 주루 코치는 3년 차 윤도현과 김도영을 각 팀의 ‘주장’으로 임명해 번트 경기를 진행했다.

두 선수는 경기에 앞서 드래프트를 진행해 팀을 구성했다. 전체 1차 지명의 영광은 김선빈에게 돌아갔다. 윤도현이 김선빈을 가장 먼저 호명했고, 김도영은 박찬호를 1차 지명 선수로 해 역할을 맡았다.

팀을 대표해 먼저 타석에 들어선 두 선수는 초구에 가볍게 번트에 성공하면서 분위기를 띄웠다.

김도영팀의 2차 지명 서건창도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윤도현팀 2차 지명 최원준은 두 개의 공이 모두 파울라인을 벗어나면서 점수를 얻는데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들이 선발한 선수들 순서대로 번트 대결이 전개됐고, 결과는 김도영팀의 승리였다. 이날 패배로 윤도현의 기대 속에 3번이라는 빠른 지명을 받았던 나성범이 팀을 대표해 오키나와 캠프에서 커피를 사게 됐다.

번트는 작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때에 따라서는 안타보다 더 흐름을 바꾸는 결정타가 되기도 한다. 득점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부분이지만 선수들이 어려워하는 기술이기도 하다.

선수들은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기술을 ‘즐거운 훈련’을 통해 집중력을 가지고 익혔다.

훈련을 이끈 조재영 코치는 “시합 때 번트 대는 게 쉽지 않다. 압박감 속에서 하는 게 쉽지 않다.

타자가 번트를 못 대더라도 주자들이 도와줘야 한다. 주자는 너무 안정적으로 할 생각하지 말고, 타자가 조금 못 대더라도 주루를 잘해서 살아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해야 한다”며 “모두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번트를 대다가 긴장감이 있었을 것이다. 경기에서는 더 압박되는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나온다. 주루 플레이로 타자를 도와줄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고 선수들에게 훈련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적절한 지명으로 승리를 이끈 김도영은 “찬호형은 기본적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뽑았다. 스타트가 중요하다. 서건창 선배가 번트를 잘 대신하고 해서 2차로 지명했다”며 “뿌듯하다. 스카우트가 된 기분이다. 스카우트들이 뽑은 선수가 잘 됐을 때 느낌이 이런 것 같다”고 웃었다.

/글·사진=wool@kwangju.co.kr



호주 캔버라에서 스프링캠프 중인 KIA 타이거즈 야수들이 타자와 주자로 나눠 번트게임을 하고 있다.

야구기록지 작성법 배워요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3월 16·17일 강습회...선착순 20명

광주에서 ‘기록의 스포츠’ 야구를 배우는 자리가 마련된다.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GBSA)와 한국야구 기록연구회(KBR)가 주최하는 야구기록강습회(이하 강습회)가 3월 16·17일 광주에서 열린다.

지난 2011년 지역에서는 처음 야구기록강습회가 열린 뒤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이번 강습회는 남구 월산동 KBR본부에서 선착순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5만원이며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에 소속된 야구 꿈나무는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이를 통한 강습회는 강의를 모두 수강하면 수료증이 주어진다.

수료자 중 매월 1회, 총 6회 이상 현장 기록에 참여할 경우 생활체육·학생 야구 현장 기록원으로

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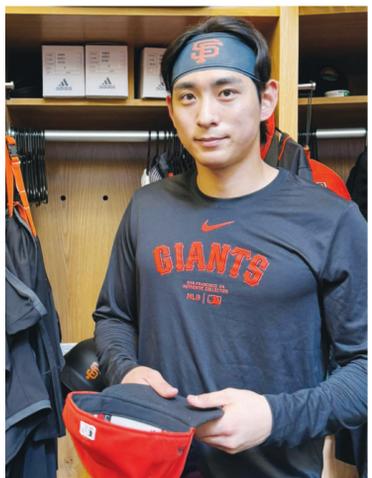
GBSA 나훈 회장의 ‘야구 매거 광주’의 야구 발전사’를 시작으로 김재호 KBR 회장 등 관계자들이 진행하는 야구의 역사와 규칙, 규약 및 용어, 야구 기록법, 야구 규칙 강의 등으로 강습회가 진행된다.

KBO리그 중계를 보면서 기록지를 작성하고, 이를 평가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강습회 참가 신청은 비비뉴스 홈페이지나 이메일(yonara77@naver.com)을 통해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강습회는 광주일보, CMB, KIA 타이거즈 후원으로 진행된다.

/김어울 기자 wool@kwangju.co.kr



‘꿈의 도전 시작’ 이정후 “설렌다, 기대된다”

SF 스프링캠프 참가...멜빈 감독 “부상 없다면 개막전 리드오프”

“키움 신인 때는 긴장되고 떨렸는데 지금은 매일 매일 기대가 되고 설레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꿈의 도전을 시작한 이정후(25·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사진)가 바리크 신인으로서 적응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정후는 14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구단의 스프링캠프가 시작된 미국 애리조나주 스킵스데일 스타디움에서 취재진과 만나 “매일매일 기대되고 설렌다”는 말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프로 데뷔 첫해인 2017년 키움 히어로즈 신

인 때를 떠올리며 “그때가(지금보다) 더 긴장되고 떨렸다. 그때는 숨도 못 쉬었지만, 지금은 마음껏 쓴다”며 “그때는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였다”고 프로 8년 차의 여유를 보였다.

이어 “여기는 날씨 좋은 물론, 훈련시설도 좋고 이용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주어져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할 수 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샌프란시스코 구단의 스프링캠프는 이날부터 시작됐지만, 이정후는 지난 1일 미국에 온 이후 일찍 훈련에 들어갔다.

이어 “선수들도 대부분 빨리(캠프에) 와서 동료

들과 지내는 데 어려움이 없다”며 “음식이나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없다”고 말했다.

특히 “만나는 선수마다 ‘굿모닝을 한국어로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본다”며 그때마다 자신이 ‘한국어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그는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려고 한다. 내가 잘해야 구단에서도 그렇고 MLB에서도 한국 선수들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감독님(밥 멜빈)께도 (김)하성이 형이 한국 선수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줘서 나도 그에 좋은 플레이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멜빈 감독은 샌프란시스코 지휘봉을 잡기 전 김하성이 있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사령탑을 맡

았다.

이날 멜빈 감독은 이정후가 부상만 없다면 개막전 샌프란시스코의 리드오프(1번 타자)가 될 것이 라고 말했다.

“엄청나게 기대된다. 개막전은 샌디에이고와 하기 때문에 나만 잘하면 하성이 형과 함께 한국에서 같은 팀에서 뛰었던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같이 출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짚은 이정후는 “리그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 시범경기 출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리드오프로 나가게 된다면 기대가 되고, 준비를 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정후는 “처음 신인이었을 때 투수 등을 보지 말자고 마음먹었다. 선배 투수를 보면 주눅이 들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 그 마음가짐을 여기서도 가져갈 것이다. 꿈꿔왔던 생활을 하고 있어서 행복하고, 목표만 보고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연남뉴스